

#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수용성이 스타트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조직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향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 국 문 요 약

2019년 3월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을 발표하였다. 신산업 고기술 스타트업 발굴을 통해 기술인재 고기술창업 특히 대학 및 연구소등의 우수 인재가 기술혁신형 창업을 하고, 이에 투자·멘토링 기술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9월 국내 벤처기업 수는 3만6759개이고, 엑셀러레이터 투자도 벤처투자자로 인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엑셀러레이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 벤처 투자액은 올해 4조원을 돌파할 거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엑셀러레이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대학부터 지자체, 기업, 기존 투자사들까지 뛰어들면서 관련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200곳이 설립됐다.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붐에 더해 진입문턱이 대폭 낮아지자 초기 기업에서 기회를 엿보는 곳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4곳에 불과했던 엑셀러레이터는 2년이 지나지 않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우버와 같은 회사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축하며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정부 역시 제2벤처 붐을 일으키겠다고 다방면의 벤처 육성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은 학술적이 연구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원인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가 인식하는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에 대한 수용성 정도와 그들의 성과 간의 관계에서 엑셀러레이터 조직에 대한 신뢰의 역할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제기된 연구 필요성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스타트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가수용성과 엑셀러레이터의 조직신뢰 그리고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 구성과 조직측면에서 전략적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어: 조직신뢰, 엑셀러레이터, 평가수용성, 스타트업 성과

## 1. 서론

2019년 9월 국내 벤처기업 수는 3만6759개이고, 엑셀러레이터 투자도 벤처투자자로 인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엑셀러레이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 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엑셀러레이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대학부터 지자체, 기업, 기존 투자사들까지 뛰어들면서 관련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200곳이 설립됐다. 전 세계적인 스타

트업 붐에 더해 진입문턱이 대폭 낮아지자 초기 기업에서 기회를 엿보는 곳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4곳에 불과했던 엑셀러레이터는 2년이 지나지 않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우버와 같은 회사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축하며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정부 역시 제2벤처 붐을 일으키겠다고 다방면의 벤처 육성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벤처기업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제1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hanhyangwon@gmail.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kyusooa@naver.com

(Bygrave & Zacharakis, 2014). 엑셀러레이터는 기존 투자유형과 달리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을 추가로 지원하며 초기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최운수·김도현, 2016). 엑셀러레이터의 평가 수용성이 스타트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수용성마저도 아직 표준화되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원인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관계자가 인식하는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에 대한 수용성 정도와 그들의 성과 간의 관계에서 엑셀러레이터 조직에 대한 신뢰의 역할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제기된 연구 필요성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스타트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가수용성과 엑셀러레이터의 조직신뢰 그리고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2.1.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 이들은 아직까지 활동 기간이 짧고, 사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인해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Scott, et al., 2014).

엑셀러레이터(AC: Accelerator)란 신생 스타트업 대상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창업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케팅, 전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이는 인큐베이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인큐베이터가 엑셀러레이터보다 앞서 창업 직후의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중소기업부, 2019). 엑셀러레이터는 벤처캐피탈, 엔젤, 인큐베이터 등과는 차별적으로 초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Cohen & Hochberg, 2014).

엑셀러레이터의 활동은 국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미국 엑셀러레이터는 전형적인 민간주도형 모델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의 엑셀러레이터는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멘토링을 특화된 모델이고, 핀란드의 엑셀러레이터는 대학중심으로 운영하며 투자에 대한 지분은 보유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김선우, 2015).

국내에서는 엑셀러레이터의 근거법이 2016년 5월에 생긴 후에 2016년 11월말부터 엑셀러레이터 등록제가 실시되었다(신진오, 2017).

스타트업 육성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시드(Seed) 투자 단계의 스타트업들에게 행정, 법률자문 및 외부 투자자 유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강진·이민화, 2016).

또한, 창업대중화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키플레이어는 바로 엑셀러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보육 및 밀착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실패율과 리스크를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정우, 2016).

엑셀러레이터는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을 선별하여 6개월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하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시장투자자의 신뢰성을 증대시켜서 이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엑셀러레이터는 벤처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서 이들이 벤처기업을 짧은 기간 동안에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에 해당하는 건물, 장소와 설비자재의 제공, 발표회 개최, 사업 및 인건비 관련 세제 혜택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손상호, 2016).

엑셀러레이터 기관은 2016년 5월 29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새롭게 정의되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9조의 3에 의하면, 엑셀러레이터 기관은 지원할 초기창업자를 선발하여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야 하며 엑셀러레이터 기관이 초기 창업자를 선발할 때는 창업자 선발 대회 또는 그 밖의 공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신진오, 2017).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창업에 필요한 유·무형 자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창업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창업에 대한 컨설팅, 경영관련 교육프로그램, 인적 네트워크 연결 등 창업기업 전체적인 지원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김용재, 2014).

엑셀러레이터 리더스포럼(ALF)에서는 엑셀러레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공한 벤처인이 자신의 성공 노하우, 투자-재원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하고,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실전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을 가속화(accelerating)시키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이 엑셀러레이터이다(김선우, 2016).

2016년부터 등록제를 실시한 엑셀러레이터는 2019년 10월 현재 204개가 등록되었으며, 서울에 53.4%가 밀집되어

분포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엑셀러레이터 등록 제도를 규정한다고 하였다. 업무 역량과 보육공간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들이 대다수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규정을 한다는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이러한 환경에서도 엑셀러레이터는 창업초기 스타트업들은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초기 투자를 받았으며, 이후 후속 투자유치를 통해 자본 조달 및 창업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인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효과가 있다. 특히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의 성장시키도록 도와주고, 실패를 방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창업에 있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인지 및 투자네트워크, 인프라, 멘토링 등 종합적으로 지원해야하며 구체적으로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수용성이 조직 신뢰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 2.2. 평가 수용성

### 2.2.1. 수용성의 개념

평가수용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수용성(receptiveness; acceptability)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받아들이기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의 질(quality) (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정의되고 있다. 또한, 순응(compliance),수용(acceptance), 동조(conformity)등의 용어를 구별하고 있다.(Duncan, 1981). 순응이란 ‘외면적인 행동이 특정의 규범 또는 규칙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외적인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에 반해 수용은 ‘내면적인 가치체계와 태도의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여 외면적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가치태도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동조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규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Barnard, 1938)는 개인의 심리적 동기에 초점을 맞춰 수용을 권위와 관련시켜 설명하였으며, Simon(1957)은 심리적 동기뿐만 아니라 조직의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종업, 2003).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관련해서 윤수재(2002)는 평가 결과처리 이행정도로 개념화하고 있는 반면, 강황성·권용수(2004)는 ‘평가결과의 향후 반영의지’로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안의 반영의지와 부정적 평가결과의 향후 반영의지로 구분하고 있다.

수용성이라는 개념은 ‘무언가를 받아들이려는 자발적 의지’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석환·조주연, 2010). 즉, 수용성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이면서도 합리적이며, 주관적인 인지를 통해 내재화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용성이라는 개념은 인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라는 개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Douglas & Wildavsky, 1982).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때 수용성을 높일 있기 때문이며, 이는 문화적인 부분까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Duncan, 1981).

조직은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고자 하는 습성이 강하며 변화에 대한 저항의지를 내포하고 있듯이 조직구성원들도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해 수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박진원, 2013).

### 2.2.2. 평가에서의 수용성

성과관리에 있어서 수용성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든 수용성의 연구들이 수용성이 높아지면 조직의 성과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성과관리에 있어서 수용성의 중요성을 기본으로 하고 연구할 정도이기 때문이다(Hendricks et al., 2004; 구분장 외, 2004; 강황성·권용수, 2004; 김성수, 2006). 그러나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이렇게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성과평가시스템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수용성의 논의는 더욱 없는 실정이다(이석환, 2008).

한국조폐공사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분석에서 성과평가 제도의 수용성, 성과평가 방법의 타당성, 성과평가 방법의 실용성, 성과평가 운영의 적정성이 성과(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해 성과평가 제도의 수용성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구분장 외, 2004). 또한, 서울시 성과평가 체계를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에서 성과평가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정도, 평가절차의 타당성,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인센티브에 대한 적절성을 설정하고 매개변수로 평가제도의 유용성에 관한 인식수준, 성과평가에 대한 대응수준을 설정한 뒤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평가절차의 타당성과, 평가제도의 대한 이해가 수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인센티브에 대한 적절성은 매개변수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강황성·권용수, 2004).

### 2.2.3. 평가수용성의 구성요소

앞서 언급한 평가의 수용성과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평가

지표에 대한 수용성(김성수 외, 2006), 평가지표 체계성에 대한 수용성(국경복 외, 2007; 조주연, 2010), 평가 절차에 대한 수용성(강황선·권용수, 2004),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강황선·권용수, 2004)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 2.3 조직신뢰

신뢰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었으며, 학문의 영역에 따라서 그리고 신뢰를 둘러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또한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또는 조직 내 등 신뢰를 둘러싼 인간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진다(Rousseau, et al., 1988).

신뢰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재연·차동욱, 2003). 신뢰는 조직구성원 사이에 활발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써(이영석, 2007), Shaw(1992)는 조직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정화제’, ‘결합자’ 그리고 조직에 통합할 수 있는 ‘접착제’라고 정의하였다. 조직 내 신뢰 혹은 조직 간 신뢰는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고 조직구성원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신뢰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상의 만족은 조직의 목표와 생산성 그리고 조직구성원 개인의 자아실현을 함께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구성개념으로 진단하고 있다(Katz & Kahn, 1961; Cook & Wall, 1980). 또한 Tan과 Tan(2000)은 조직과조직구성원간의 고용으로 인한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로서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할 때 조직이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평가와 확신으로 보았다. Mayer(2010)등은 공유된 가치에 기초한 상호간의 이해를 존중하면서 조직에 대한 신뢰란 조직의 상급자에 대한 믿음으로 조직에서의 리더의 행동이 조직구성원에게 이익을 줄 것 이라는 확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거래 상대방의 믿음직성(reliability)과 성실성(integrity)에 대한 확신이 신뢰라고 하였으며(Morgan&Hunt, 1994). 신뢰를 ‘일정집단의 타인들의 선의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각자에 대한 확신과 각자 집단의 목표와 일치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설명하였다(Ring & Van de Ven, 1994). 복잡한 시스템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학자들은 신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지성구·장성희, 2008). 신뢰가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서 ‘신뢰가 몰입과 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며 하면서, 신뢰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리더와 부하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신뢰의 역할은 중요하며 신뢰는 의사소통이 되는 정보량을 증가시키고 좋지 않은 정보도 공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며, 조직의 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더와 구성원, 상사와 부하 그리고 구성원들 상호간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Mishra & Morrissey, 1990).

Cook과 Wall(1980)은 조직 안에서 구성되는 신뢰를 부하의 상사에 대한 신뢰, 상사의 부하에 대한 신뢰 등 조직의 수직관계에서 형성되는 수직적 신뢰와 동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수평적 신뢰, 그리고 조직과 조직구성원간 형성되는 조직신뢰로 분류하였다. 박홍식(1999)은 조직신뢰는 조직이 원하는 직무계약내용의 이행이나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상식 혹은 기대 수준과 엇갈리지 않는 것을 되풀이하며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쌓이고 그것으로 조직구성원과 조직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서재현(2005)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이 이해관계에 해가 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김호균(2008)은 조직신뢰란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신뢰하는 것으로 제도적 신뢰의 하나이며,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믿음과 확인을 갖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김찬중·윤찬성(2008)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몰입 하도록 하는 심리적 유대감의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위의 정의들을 통해 조직신뢰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조직 내 신뢰유형 중 조직유효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평적 신뢰보다는 회사나 상사에 대한 신뢰를 뜻한 수직적 신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사회는 조직신뢰의 무게가 수평적 인간관계 보다는 수직적 인간관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영석, 2007).

### 2.4 스타트업 성과

초기기업이라고도 불리는 스타트업(Start-Up)의 국내 법률상의 정의는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 창업자이다(중소기업창업지원, 2017). 국내에서는 벤처기업, 초기기업, 창업 등 명확하지 않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권용석 외, 2019). 현재까지 정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장단계로,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이전 단계의 기업’을 의미한다(권용석 외, 2019).

지식혁명 시대, 나아가 4차 혁명에서는 자본, 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요소 보다는 지식, 융합과 같은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Neuauer & Lank, 1998). 초기 벤처기업은 성공여부와 관련된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공성현, 2014). 하지만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을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엑셀러레이터 관련 연구는 대부분 인큐베이터와 비교로 진행되어 왔다(강유리, 2014; 김용재·염수현, 2014). 하지만 인큐베이터는 일반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는 유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엑셀러레이터와 구분되고 있다(김용재·염수현, 2014). 대학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공간과 시설 등의 지원을 주로 하고 있으며, 자금투자나 후속 투자에 대한 연계가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큐베이터를 본 연구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박찬휘, 2017). 오히려 최근에는 지분 투자를 통해 위험을 공유한다는 점, 후속 지원이 존재한다는 점, 후속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벤처캐피탈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최운수, 2016). 특히,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과 같은 후속 지원 내용이 인큐베이터나 다른 투자유형과의 중요한 차이라고 주장한다(Cohen, 2013).

엑셀러레이터는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후속지원 체계는 이러한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Hallen et al., 2014). 특히 엑셀러레이터는 벤처캐피탈의 경우 위험하고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 즉, 관심이 없는 시기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Miller & Bound, 2011).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결과 벤처 생태계 내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엑셀러레이터와 관련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고, 투자이력과 투자성과가 많은 일부 엑셀러레이터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거나, 단편적인 부분에 한정된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Choi & Kim, 2017). 따라서 엑셀러레이터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스타트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창업생태계에서 초기 스타트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필수로 꼽히는 것은 투자, 네트워크, 공간의 3대 요소이며(KSEF, 2016), 이 세 가지는 지속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스타트업의 생존은 불투명해진다. 그중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은 초기 매출부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금경색을 경험하며(이동희, 2012), 2016년 KSEF에서 발간한 ‘한국 스타트업 생태시스템 포럼 백서’에서도 투자자금 조

달의 어려움이 23.1%로 스타트업 성장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한주형,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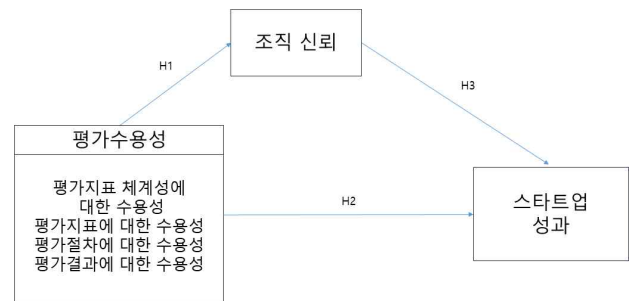
엑셀러레이터나 스타트업이 지속적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둘 모두의 비즈니스 효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양사 모두에게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다(최중빈, 2019). 엑셀러레이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 및 후속 투자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54%로 과반 이상의 응답으로 투자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권용석 외, 2019).

기존 연구에서는 엑셀러레이터를 받는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 선택 시 중요한 부분에 나와 있듯이 스타트업은 기초적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뿐 아니라 후속 투자가 명확할수록 스타트업의 성과는 높아진다. 스타트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수용성의 지표를 체계화시키고 전문화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과 지표를 작성해야한다.

### III.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과 가설 제시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에 대한 수용성과 조직신뢰가 선행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수용성과 조직신뢰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와 스타트업 성과 간의 관계에서 엑셀러레이터 조직에 대한 신뢰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같은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바는, 스타트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수용성과 조직

신뢰, 스타트업 성과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권영제(2015). *국내외 엑셀러레이터의 엑셀러레이팅 접근방법에 관한 비교 분석연구: Batch process모형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 권용석·황보윤·이중훈(2019).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요인에 관한연구. *벤처창업연구*, 14(1), 33-46.
- 김남욱(2018). 개인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의 정의와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초기 창업기업 3 개사를 중심으로.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1299-1307.
- 김남욱(2018). *스타트업 지원에 있어서 개인형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김선우(2015). 창업생태계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이슈. *과학기술정책*, 25(6), 20-25.
- 김홍기·김채광(2018). 창업자와 투자자간 네트워크가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Tips 사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3), 47-57.
- 박진원(201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성과관리 수용성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손상호(2016). 엑셀러레이터 및 엔젤투자의 활성화. *주간금융브리프* 25(20), 8-9.
- 박찬희(2017).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기술창업대학원.
- 장영희(2017). *개인특성과 보상만족이 조직신뢰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양대학교
- 신진오(2017).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벤처대학원.
- 이정우.(2016). *창업대중화의 주역, 엑셀러레이터*. *Entrepreneurship Korea*, 1, 7-10.
- 조병문·신현한(2019). 스타트업관련 정책의 현황분석과 정책제안.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1029-1053.
- 중소벤처기업부(2018).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 관계부처합동(2019). *제2벤처 붐 확산전략* 중소기업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중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표 2019.4.23
- 최윤수(2016). 투자 행태를 통한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 비교연구. *벤처창업연구*, 11(4), 27-36.
- 최윤수(2017). *투자자 유형이 피투자 스타트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최중빈(2019). 엑셀러레이터의 관계효익이 서비스 관계의 질과 장기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 14(4), 1-27.
- 한주형·황보윤(2018). 엑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투자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추계학술대회*, 283-288.
- 한주형(2019). *엑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투자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